

3/7(월) 스가랴 묵상 20

스가랴 11:1-11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두로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 본문은 레바논과 심지어 이스라엘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바논의 심판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본문은 레바논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나무들이 등장합니다(1-2절,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곱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라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이 곱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었드러졌도다.”). 여기 ‘백향목,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나무’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쓰여진 극상품 나무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레바논 히람 왕과 계약을 맺고 극상품 나무인 백향목을 수입함으로써 성전 건축에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영화를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3절, “목자들의 곱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라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라다.”). 즉, 이들의 심판은 레바논 왕과 왕국의 교만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몰락은 화려한 나무들의 모습과 맞물려 더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양떼의 심판

하나님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합니다(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것은 양떼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함으로 잡혀 죽을 운명에 처해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을 배신하고 심지어 팔아 넘길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참된 목자의 심정)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양 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먹이기까지 하셨습니다(7절,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그러나, 당시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주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합니다(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심지어 백성들 때문에 얻어진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타락한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 바티칸의 대성당을 짓기 위해 구원의 티켓처럼 면죄부를 팔았던 구교의 타락한 사제들과 마찬가지로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 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더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전처럼 더 이상 이방 민족의 손에서 건져 주시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형벌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는 어수선하고 혼란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하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제 더이상 그들을 돌보시지 않고 버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또, 그의 백성과 언약을 파기하시는 상징으로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십니다. 이 때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보입니다(10-11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하지만 결론은 그것이 참회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도 한 때 부유했던 두로, 블레셋, 레바논 그리고 강대국인 앗수르와 바벨론도 결국은 모두가 멸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교만하고 범죄하는 지도자와 국가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악한 지도자와 정부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엄중하게 처해질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떠한 심판 중에서도 우리가 참회하고 그 분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마음의 찢림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지 못한 중한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소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웨더스필드 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멕시코 이철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